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증액 총력 ‘행복콜 버스·택시’ 호평

최영일 순창군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관영 도지사 등 만나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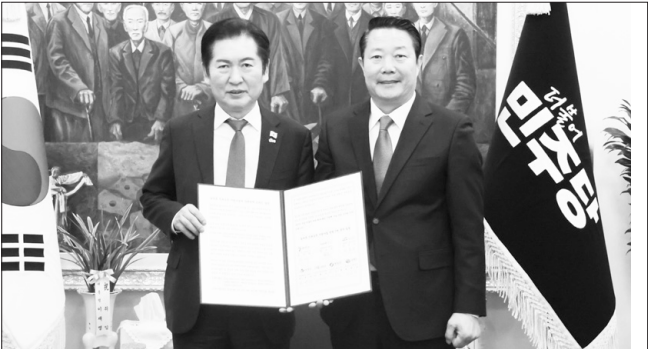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 원장을 시작으로 15일 김관영 전북도 지사, 17일에는 다시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윤준병 전 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달아 직접 만나 국·도비 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 등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 7일 어기구 농해수위원회 정을 만난 이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무려 100%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 비율은 △국비 50%(기존 40%) △도비(전북) 30%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영일 순창군수.

(기존 18%)로 상향되고, △군비 부담률은 20%(기존 42%)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북도가 30% 도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강력한 조건이 명시되면서 정부와 도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번 농해수위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원 확보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

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재 지방비(도·군비) 60%는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담이다”며,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증액이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교통 복지 향상 기여

임실군이 추진 중인 ‘행복콜 버스·택시’ 사업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역 교통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복콜 버스·택시는 기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소재지, 전통시장, 병원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이동서비스다. 현재 행복콜 버스는 37개 마을, 행복콜 택시는 4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행복콜 버스는 이용 1시간 전 행복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수요응답형(콜형) 방식으로 주중에 운행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복콜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장날 중심으로 운행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용 요금 또한 매우 저렴해 행복콜 버스는 일반 1,000원(학생 500원), 행복콜 택시는 해당 2,000원으로 이용 가능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은 행복콜사업 운영 초기 시범운행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군은 앞으로도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행복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승시간 조정, 노선 보완, 마을 단위 연계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거리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행복콜 버스·택시가 교통 오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교통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교통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6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은 2026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순창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유기질 비료 및 부속유기질 비료를 공급 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속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일반퇴비)이며, 1포대(20kg) 기준으로 유

기질비료는 1,600원, 가축분 및 일반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관내 퇴비업체에서 구입하는 퇴비는 300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단, 신청량은 농지 1,000㎡당 100포대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업체 및 제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순창=이왕원 기자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제22기 출범식·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협의회장 염상열, 이하 ‘임실군협의회’)는 지난 17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심민 군수,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이하 ‘출범식’)를 개최했다.

제22기 자문위원은 11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협의회장 이취임식,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안) 등 보고,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관련 자문위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역 청소년 활동 중심지로 입지 굳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지리산 청소년자유공간 및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올해 각종 청소년 활동 평가 및 공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로 입지를 굳혔다.

지리산청소년자유공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온라인’이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고,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자원봉사 부문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방과후이카



데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초등부분 청소년주도형 교통안전프로그램인 ‘청블러’(청소년이 바라보는 블랙박스 리뷰) 활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은 운영성과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우수한 평가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한 과정의 결실이며, 그동안 기획 참여하는 활동과 학습지원, 역량,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의 노력의 결과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교통산 달빛 피옴길 준공식 가져

남원시는 18일, 교통산 명소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교통산 달빛 피옴길’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기존 교통산 둘레길 중 1.2km 구간에 맨발 횡토틀길, 1.7km 구간에 숲길을 조성하여 총 2.9km의 걷기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한 것으로, 생활권과 인접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교통

산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 올해 3월 착공해 11월 최종 준공됐다.

조성은 △맨발 횡토틀길과 숲길 △화토 및 황토볼 체험장 △이계 정원조성 △계류형 세족장 설치 △배수로 개선 △블라드등 △반딧불 조명 △CCVT 설치 등 안전·경관 시설을 대폭 확충해



일반 시민은 물론 맨발걷기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험·휴식형 복합 산림공간이 조성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개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27일까지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 불조심을 실천수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모전 주제는 화재 예방의 필요성 등 안전의식 함양 관련,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절지에 손그림 포스터를 그려 1인 1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참가는 남원 초등학교 및 12세 이하 어린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를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063-630-8244)로 제출, 공모된 작품은 11월 말 예선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플라스틱 병뚜껑 전달

남원시 바이오산업 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연구원)은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해 사내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관 내에 병뚜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8월부터 세 달간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결과 약 4,000여개의 병뚜껑이 모였으며, 수거된 병뚜껑은 업사이클링 자원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